

다산포럼

정조의 역사 왜곡



황 상 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 교정에는 사도 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이 있다. 또 캠퍼스 내의 압병원 6층 테라스에서는 250여 년 전 ‘임오화변’의 현장인 창경궁의 문정전이 한눈에 들어온다. 나는 종종 학생들과 함께 경모궁과 창경궁을 탐방하곤 한다. 역사의 무게와 진실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영조실록’ 1776년 2월 4일자에는 다음 기사가 실려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그때의 사실이 죄다 실려 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자는 전하고 들은 자는 의논하여 세상에 퍼져 사람들의 이목을 어지럽히니, 신의 마음이 애통합니다. … 나라의 중요한 일은 모두 간첩(簡牒)에 적은 뒤 금액에 넣어 명산에 보관해서 세월이 지나도 고칠 수 없으니, 일기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일기를 두고 안 두는 것은 전하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세손(영조)이 임금(영조)에게 올린 상

소로, ‘승정원일기’ 가운데 사도세자에 관한 불미스러운 기록들을 지워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대해 영조는 곧 허락했다. 요즈음 같으면 삭제한 사실조차 모르도록 처리했겠지만, 다행히 당시에는 삭제한 곳곳마다 “임금의 분부로 지웠다”라고 표시했다. 따라서 지워진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느 날의 기록이 삭제되었는지는 알 수 있어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정조는 명산의 사고에 보관하는 간첩, 즉 실록에는 관련 내용이 남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승정원일기는 지워달라고 영조에게 간청했고, 영조는 같은 이유로 손자의 소원을 받아들였다. 그럼 실록은 무사했을까? “정조실록” 1781년 3월 7일자를 보자. “10년 동안의 실록은 총재관이 직접 역었으니 교정할 일은 없다. 대신이 정리해서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원일대대학의 손을 거쳤으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에 앞서 총재관 이휘지가 대제학으로서 편찬을 주관했는데, 임금이 1758년 이후 10년 치의 승정원일기를 이휘지에게 주고 찬수를 맡겼다. 그리고서 아무도 참견 못하도록 지시했는데 이제 실록을 간행하는 일이 현장이므로 하교한 것이다.”

정조는 사도세자와 관련된 문제의 시기의 편찬을 이휘지 한 사람에게 일임했

다. 영조실록 편찬 과정을 연구한 오창녕 교수는 이렇게 썼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시기를 특정 인물에게 전수하게 했던 사례가 더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더욱이 정조가 이휘지에게 편찬 자료로 준 승정원일기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세자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그리고 정조는 이휘지가 편찬한 것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엄명을 내렸다.

세종은 ‘태종실록’을 열람하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거두었다. 앞서 태종이 ‘태조실록’을 보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변경량 등은 “전하께서 보신 뒤에 다시 내려주신다면, 후세 사람들은 모두 믿지 못할 역사라고 의심할 것입니다”라며 만류했다. 임금은 선왕(先王)의 시대를 기록한 실록을 볼 수조차 없는 것인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찬 과정에 직접 관여하다니!

이제 역사 왜곡의 마지막 제3막이다. 1789년 10월 16일, 정조가 심혈을 기울인 사도세자의 세 유백, 현풍원이 완공되었다. 이에 맞춰 정조는 사도세자의 전기 격인 ‘현릉원지’를 썼다. 승정원일기를 세박하고, 국경 역사서인 영조실록을 ‘올바르게’, 즉 자신의 입맛대로 만든 위에 아버지를 성군의 모습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정조는 문종·세종·영조와 더불어 학식이 가장 뛰어났던 임금이다. ‘춘추’와 ‘사기’ 등 역사서도 꿰뚫고 있었을 것이다. 그

런데 어째서 역사와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 일차 무식쟁이라든 결론 해서는 안 될 왜곡을 거듭 자행했을까? 정조는 이유가 어떻든 명을 다하지 못한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했고, 또 그런 만큼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미화해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이려면 사도세자의 총애를 받아 딸과 아들을 낳았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남편인 사도세자에게 맞아 죽은 빈애나 비슷하게 목숨을 빼앗긴 내인·환관들에 비할 것인가? 사도세자의 비행을 지우는 것은 그들을 거듭 죽이는 셈이다. 애민(愛民)과 인정(仁政)을 내세우는 조선의 임금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조는 생부의 만행이 가려지지 않으면 왕위가 위협을 받는다고도 생각했을 것이다. ‘집이 곧 국가’이던 시대에 국가 안보를 위해 부득이했다고 할지도 모른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정조는 그래도 선악을 분간할 줄 알아서 아버지의 비행을 감추고 지우려 했다. 하지만 그런 분별력도 없어 악행을 선행이라고 우긴다면? 끔찍한 일이다.

정조의 시도는 잠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비치지만 유장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어리석음과 무모함만이 뚜렷할 뿐이다. 누구든 역사를 희롱하다가는 역사의 심연에 빠져 허우적거리 수밖에 없다. 정조는 반면교사다.

社說

광주·전남, 김치 중국 수출 미리 대비를

우리나라 김치의 중국 수출 길이 곧 열리겠다고 한다.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김치 총가’를 자임하며 김치산업 특화를 추진 중인 광주·전남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테니 더욱 그렇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국 김치의 조속한 수입을 약속했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 내 고시 발효만 이뤄지면 연내라도 김치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치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김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농수산물 소비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김치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지역 업체들이 영세한 데다 전적으로 김치만 생산하는 전문업체 특성상 생산단가가 높아 우리보다 훨씬 가격이 낮은 중국은 물론 국내 경쟁력도 떨어진다.

이 때문에 다양한 품목의 진출을 논리며 저렴하게 김치를 끼워넣기 상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 지역의 김치는 한국을 대표한다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결다리 처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큰 시장에서 계속 소외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가격은 높지만 맛과 품질이 월등하게 좋은 광주·전남 김치의 진가를 현지에 홍보하는 게 급선무다. 침체에 빠져 있는 광주 김치타운 활성화로 내실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광주·전남 공동으로 지자체·생산자·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수출 협력체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일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유통 라인 확보,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시장 조사 등 철저한 현지 대응 전략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자치단체 빛 갈수록 늘어만 간다는데

전국 자치단체의 부채가 1년 만에 2조 원이나 늘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통합 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1년 전보다 1조 9천959억 원 늘어난 총 49조 8천84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시도별(소속 기초자치단체 포함)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인천이 9.1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광주도 6.59%로 전국 평균 4.60%를 훨씬 웃돌았다.

‘부채’는 향후 직원에게 줄 퇴직수당이나,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영수입 등을 포함하므로 채무보다 더 정확하게 자치단체의 빛 부담을 보여준다. ‘채무’는 자치단체가 금융시장에서 조달한,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인 빛을 뜻한다.

광주시의 채무액 증가율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광주시 채무액은 지난 2012년 7917억 원에서 2013년 8336억 원, 지난해 9246억 원으

로 증가했다. 채무잔액 증가율은 지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6.78%(1329억 원)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 빛은 광주시가 순수하게 진 채무로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지방공기업과 각종 공사·공단이 가진 빚까지 합하면 채무잔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지방자치체가 부활된 지 20년이다. 광주시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빛에 허덕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제 자치단체는 스스로 빛을 줄여나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절장이니,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영수입 등을 포함하므로 채무보다 더 정확하게 자치단체의 빛 부담을 보여준다. ‘채무’는 자치단체가 금융시장에서 조달한,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인 빛을 뜻한다.

광주시의 채무액 증가율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광주시 채무액은 지난 2012년 7917억 원에서 2013년 8336억 원, 지난해 9246억 원으

정촌 특·특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기려면



문 근 영
남부대 유아교육과 3학년

폭력과 같은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어린 아이를 때리고 내동댕이치는 장면들을 보면서 해당 부모는 물론, 자녀를 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교육기관에 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을까? 유아교육기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부모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직장이나 집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며 CCTV 의무화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CCTV 설치시 부모와 교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공간에 아동학대가 난무하는 것은 결코 교사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86만명에 이른다. 신규 보육교사 취득자도 연간 10만명가량 배출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4년간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외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2~3년의 전문대 졸업자는 필수 17과목 이수를 통해 1년 6개월 과정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온라인을 통해 필수 17과목과 이론 26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유아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은 직업의식과 교직원이 정확하고 확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현재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정부가 점차 지원을 줄이자 일선 어린이집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졌고 일부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말로만 외치는 복지가 아닌, 교육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아를 지원 하는 ‘공보육화’가 실현되길 바란다.

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해 무려 15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지난 2013년 기준 144만원으로 과도한 업무와 근무시간에 걸맞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얼마 전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모집하면서 놀란 경험이 있다. 법정근무 시간보다 1시간을 초과해 일하면서도 월급은 고작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동학대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영유아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보육을 지원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수용 능력이 모자라는 ‘보육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영유아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보육을 지원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수용 능력이 모자라는 ‘보육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 고

모죽(毛竹)의 교훈



김 형 주
광주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다른 나무와 달리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뿌리 내림과 넓힘에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 ‘모죽’의 교훈이 지난날 31일 100만이 넘는 관람객이 몰려 대 성공을 거두고 폐막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 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났다.

이번 박람회의 지붕 없는 주제관으로 지난 2003년 개장한 죽녹원은 개장 초기에 곡절이 있었다. 당시 사양산업으로 관심이 떨어지던 상황에서 대나무를 더 심고 보존하고 가꾸어 한다는 군수의 주장이 일부 군민들의 냉소의 벽에 부딪혔고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생태도시 담양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대나무의 효용 가치를 예측한 담양군의 지속적인 주민 설득과 지혜를 모은 결과, 이제는 인구 5만이 채 안 되는 담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해 담양하면 대나무가 연상되는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대나무를 담양의 미래산업으로 키워나가고자 할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다른 나무와 달리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뿌리 내림과 넓힘에 필요한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모죽’의 교훈으로 차근차근 준비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지난 9월 17일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라는 주제로 개막해 10월 31일까지 45일간의 행사를 성공리에 끝냈다.

인구 5만이 되지않는 작은 도시에 100만이 넘는 관람객이 몰려 힐링과 체험이라는 콘셉트로 녹여낸 박람회를 둘러봤다. 많은 관람객은 대숲 바람에 흔들리는 죽녹원 길에서 느림, 비움, 채움의 여유도 가졌을 것이고 녹색 미래를 밝힌 친환경 소재인 대나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귀중한 시간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 대나무 면적의 34%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담양에서 지구 온난화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대나무의 가치를 공감하였을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세계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 주민으로서의 자긍심도 심어 주었을 것이다. 이번 세계대나무박람회에는 군민 12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담양을 전국에 알리고 해외에 알리는 도우미를 자청했다.

그리고 관람객을 통해 자신들의 고향

인 담양이 전국적으로 훨씬 많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담양에 사는 주민이 서울이나 타지역에 갔을 때 담양에서 왔다고 하면 충청북도 단양에서 온 걸로 착각했지만 이제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한다. 이제 담양하면 애! 대나무, 죽녹원으로 통하게 됐다.

박람회 기간 담양을 찾은 관람객 중 특히 젊은층의 관람객이 많았다는 것도 담양의 미래를 밝게 해 준다.

그 젊은이들이 몇 년 후에는 추억이 깃든 담양을 자녀들과 또 찾아 올 것이다.

2018년이 된다. 담양이란 지명을 사용한 지 천년이 된다. 박람회를 치르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은 지명 천년을 맞아 다시 한번 꽃피우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죽녹원에서 관광전에서, 또 가로수길에서 찾은 담양의 녹색 미래를 관람객들은 다시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인고의 세월을 딛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 ‘모죽’의 교훈처럼 또 다른 씨앗을 심고 내실을 다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대나무로 속속 커갈 시간이 또 올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스핏파이어’(Spitfire)는 2차 세계 대전 초기 폭격기(風前燈火)와 같은 영국을 지켜낸 전투기로 유명하다. 유럽 대륙을 석권한 후 영국을 침공하려던 나치의 야욕을 꺾은 주역이다.

영국은 인적·물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1940년 7~10월 영국·독일 공군 간에 치러진 ‘영국 본토 항공전’(Battle of Britain)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는 ‘레이더’라는 최첨단 장비로 어느 방향에서 독일 전투기가 오는지를 미리 알 수 있었던 데다

‘스핏파이어’라는 뛰어난 전투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스핏파이어’ 개발 과정도 극적이다. 1933년 유럽에서 요양 중이던 영국 슈퍼마린 회사사의 항공기 설계가 레지널드 미첼(1895~1937)은 독일 항공기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쟁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그는 건강이 악화된다는 의사의 경고로 무시한 채 신형 전투기 개발에 전념했다. 마침내 1936년 혁신적인 전투기의 원형을 탄생시켰지만 그는 자신이 개발한 전투기의 활약을 보지 못한 채 이듬해 타계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등장한 ‘메서슈미트 Me-262’는 수세에 몰린 독일의 비

밀빙기였다. 당시의 프로펠러기와 차원이 다른 제트엔진을 장착한 세계 최초의 전투기였다. 하지만 독일은 혁신적인 제트 전투기를 갖고도 불안정한 제트엔진 성능과 정예 조종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전세(戰勢)를 뒤엎을 수 없었다.

반면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은 독일의 첨단 제트 전투기 설계·제작 기술을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5년 후 1950년 10월 압록강 상공에서 격돌한 미국의 F-86(세이비브)와 소련의 미그-15 전투기는 마치 배간 듯이 닮은꼴이었다.

요즘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이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의 졸속 추진과 미국 측의 핵심 기술 이전 불가토 기한 내에 새로운 전투기 개발과 실전 배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 비해 정부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첨단 전투기 개발은 설계자의 열정과 함께 핵심 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KFX가 한국 영공 수호에 절대적이려면 정치권은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찾아 현재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한국형 전투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인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